WEBVTT

00:00:39.423 --> 00:00:41.350
안녕하세요.
인디비쥬얼 포토그래픽

00:00:41.350 --> 00:00:46.404
조재현 실장입니다.
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.

00:00:46.404 --> 00:00:52.108
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에 대해서
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 텐데.

00:00:52.632 --> 00:00:57.307
이번 시간에는 일단
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

00:00:57.307 --> 00:01:02.408
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
카메라의 종류를

00:01:02.408 --> 00:01:05.523
왜 알아보는지에 대해서
말씀을 드리자면

00:01:06.587 --> 00:01:12.396
저는 이제 일적으로
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

00:01:12.684 --> 00:01:15.300
다양한 카메라를
다 가지고 있긴 하죠.

00:01:15.379 --> 00:01:18.819
근데 제가 그냥
일상생활에서 취미,

00:01:18.980 --> 00:01:21.447
취미나 아니면 그냥
평소 생활에서

00:01:21.472 --> 00:01:27.172
사용하는 카메라는
아마도, 90% 정도,

00:01:27.641 --> 00:01:32.499
스마트폰 카메라가 될 거예요.
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

00:01:34.953 --> 00:01:38.839
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뭐,
그건 조금 있다가

00:01:38.839 --> 00:01:42.787
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
일단 그 종류에 대해서

00:01:42.787 --> 00:01:47.564
말씀드린 이유는
DSLR 카메라든 미러리스 카메라든

00:01:47.646 --> 00:01:52.528
아니면 컴팩트 카메라든
또 필름 카메라가 될 수도 있죠.

00:01:52.906 --> 00:01:58.636
여러 가지 카메라가

어떤 장점이 있고

00:01:58.636 --> 00:02:01.592
단점이 있는지
이것도 나한테는

00:02:01.617 --> 00:02:06.118
어떤 카메라가 맞는지
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시는

00:02:06.118 --> 00:02:07.842
시간을 가지시는 게
좋을 것 같아서

00:02:07.842 --> 00:02:10.523
이런 시간을 준비했고요.
그러면 지금부터

00:02:10.523 --> 00:02:14.494
진짜 카메라를 하나씩 보면서
어떤 장점, 단점이 있는지

00:02:14.750 --> 00:02:17.653
한번 알아보는 시간을
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18.343 --> 00:02:23.886
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를
하나씩 보면서 한번 맛을

00:02:23.911 --> 00:02:27.953
들이도록 하겠습니다.
첫 번째로 핸드폰 카메라가 있죠.

00:02:28.178 --> 00:02:31.559
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
카메라 중의 하나일 텐데,

00:02:32.075 --> 00:02:37.076
핸드폰 카메라는 더
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

00:02:37.076 --> 00:02:40.687
스마트폰 카메라죠.
핸드폰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

00:02:40.687 --> 00:02:43.471
쓰는 표현이고
스마트폰 카메라는 일단,

00:02:44.898 --> 00:02:48.475
최고의 장점이 있어요.
그게 뭐냐면

00:02:49.560 --> 00:02:52.226
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게
최고의 장점이죠.

00:02:52.552 --> 00:02:56.863
항상 전화기는 모든 분들이
항상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

00:02:56.863 --> 00:02:59.468
그러니까 언제든지
찍고 싶은 게 있으면

00:02:59.769 --> 00:03:06.523
꺼내서 촬영하시면 되고

그리고 일반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

00:03:06.523 --> 00:03:12.644
무게가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고
그렇다고 얘가 다른

00:03:12.644 --> 00:03:15.049
컴팩트 카메라나
미러리스 카메라보다

00:03:15.168 --> 00:03:18.995
적어도 낮에 찍는 사진,
낮에 찍은 사진에 있어서는

00:03:19.139 --> 00:03:22.100
화질이 그렇게
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.

00:03:22.281 --> 00:03:29.548
화질도 좋고 휴대가 용이하고
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.

00:03:30.838 --> 00:03:35.585
촬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
이만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보다

00:03:35.585 --> 00:03:38.300
그냥 핸드폰을 들고
찍었을 때 뭔가

00:03:39.685 --> 00:03:42.579
모델 입장에서 편안한 마음을
가질 수 있기 때문에

00:03:43.475 --> 00:03:47.378
사진을 찍을 때의 분위기가
그대로 사진에 담기잖아요.

00:03:47.378 --> 00:03:50.093
그렇기 때문에
이만한 카메라를 들고

00:03:50.093 --> 00:03:52.249
촬영하는 것보다
그냥 이렇게 찍는 게

00:03:52.519 --> 00:03:56.210
더 거부감이 없어서
모델의 입장에서는

00:03:56.221 --> 00:03:59.127
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
나타낼 수도 있고

00:03:59.127 --> 00:04:01.811
사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
그대로 담기게 되니까

00:04:02.544 --> 00:04:05.496
좋은 것 같아요.
저도 많이 찍고

00:04:05.496 --> 00:04:09.564
또 요즘에는 SNS를
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

00:04:09.653 --> 00:04:13.161
SNS 사진에 가장 최적화된

디바이스가 아닐까,

00:04:13.161 --> 00:04:17.995
장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
저는 개인적으로 미러리스로 찍던

00:04:17.995 --> 00:04:21.810
스마트폰으로 찍던
DSLR로 찍던, 뭐로 찍든 간에

00:04:22.404 --> 00:04:25.065
어떠한 장비로 찍은 사진이
더 좋다고는

00:04:25.065 --> 00:04:28.653
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
사실 사진의 퀄리티보다,

00:04:29.146 --> 00:04:32.312
사진의 퀄리티라는 게
화질이 좋은 게

00:04:32.312 --> 00:04:35.005
그 사진의 퀄리티가 높다고
말하기보다는

00:04:35.260 --> 00:04:37.822
그 사진의 내용이 좋은 게
그 사진의 퀄리티가

00:04:37.822 --> 00:04:41.484
높다고 말하는 게
더 맞을 것 같거든요.

00:04:41.484 --> 00:04:46.454
그러니까 나는 SLR이든
미러리스든 컴팩트든

00:04:46.454 --> 00:04:50.418
다른 카메라가 없다.
핸드폰, 스마트폰 카메라만

00:04:50.418 --> 00:04:56.655
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
충분히 더 멋있고 감성 있고

00:04:56.698 --> 00:04:59.433
퀄리티가 있는 사진 생활을
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

00:04:59.971 --> 00:05:03.640
전혀 이번 기회에
좋은 카메라를 사야겠다.

00:05:03.640 --> 00:05:05.873
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
없을 것 같아요.

00:05:06.016 --> 00:05:10.549
물론 자신의 사진스킬이
많이 향상이 된 후에는

00:05:10.694 --> 00:05:14.834
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
화질의 퀄리티가 훨씬 좋은

00:05:14.834 --> 00:05:17.450
카메라를 쓰시는 것도

당연히 좋겠지만

00:05:17.687 --> 00:05:21.608
지금 당장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
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

00:05:21.666 --> 00:05:24.285
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
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

00:05:24.431 --> 00:05:31.837
다음으로 컴팩트 카메라가 있죠.
컴팩트 카메라라고 하면

00:05:31.837 --> 00:05:33.910
그런 것 같아요.
요즘에는 물론

00:05:33.910 --> 00:05:36.502
스마트폰 카메라에도
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한

00:05:36.502 --> 00:05:40.548
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
그것보다 조금 더, 조금 더

00:05:40.600 --> 00:05:44.112
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
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

00:05:44.112 --> 00:05:48.706
기능들을 담고 있죠.
아마 이 스마트폰 카메라하고

00:05:48.712 --> 00:05:51.008
이 컴팩트 카메라가
가장 큰 차이점은

00:05:51.132 --> 00:05:53.601
이 안에 들어가는
센서 크기의 차이일 거예요

00:05:53.601 --> 00:05:59.083
센서 크기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
스마트폰에 들어가는

00:05:59.083 --> 00:06:03.038
센서, 센서를 잘
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

00:06:03.038 --> 00:06:05.989
말씀드리자면 센서는
표준 카메라의 필름이라고

00:06:05.989 --> 00:06:08.624
생각하시면 돼요
그 필름 역할을 하는

00:06:08.624 --> 00:06:11.074
센서가 스마트폰이든
컴팩트 카메라든 모든

00:06:11.074 --> 00:06:14.451
카메라에 들어가 있는데
일단 스마트폰에

00:06:14.451 --> 00:06:18.643
들어가는 센서는

예를 들어서 새끼손톱의

00:06:19.699 --> 00:06:22.912
3분의 1정도 크기의
센서가 들어간다라고 치면

00:06:22.939 --> 00:06:25.781
이러한 컴팩트 카메라에
들어가는 센서는

00:06:27.332 --> 00:06:30.656
새끼손톱의 반 정도 크기 되는
센서가 들어간다고

00:06:30.656 --> 00:06:34.380
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
제조사마다 너무나 다양한

00:06:34.380 --> 00:06:36.512
크기의 센서들을 가진
카메라들이 많지만

00:06:36.512 --> 00:06:41.907
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.
센서가 조금 더 큰 게 들어가니까

00:06:42.047 --> 00:06:45.845
당연히 화질이 더 좋겠죠.
화질 얘기가 나왔으니까

00:06:45.845 --> 00:06:49.459
말씀드리자면 컴팩트 카메라든
미러리스 카메라든

00:06:50.180 --> 00:06:52.554
1,000만 화소다.
2,000만 화소다.

00:06:52.579 --> 00:06:55.683
3000만 화소다.
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

00:06:55.942 --> 00:06:59.370
그런데 카메라를 나중에
선택를 하실 때

00:06:59.370 --> 00:07:03.271
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
그 화소도 물론 중요하죠.

00:07:03.271 --> 00:07:05.261
중요한데, 그것보다도
더 중요한 게

00:07:05.261 --> 00:07:07.676
이 센서의 크기를
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.

00:07:08.507 --> 00:07:14.592
예를 들어서 1인치 센서다,
이 카메라도 1인치 센서고,

00:07:14.641 --> 00:07:18.950
이 카메라도 2인치 센서다,
그런데 얘는 1500만 화소고

00:07:19.820 --> 00:07:22.474
얘는 스마트폰 1,000만 화소다.

그러면 당연히 얘가

00:07:22.499 --> 00:07:25.809
500만 화소가 높으니까
얘가 더 화질이 좋을 거라고

00:07:25.809 --> 00:07:29.218
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
그럴 수도 있어요.

00:07:29.218 --> 00:07:31.327
그럴 수도 있고
아닐 수도 있다는 걸

00:07:31.327 --> 00:07:33.790
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
드리는 거고요.

00:07:34.254 --> 00:07:37.073
같은 센서의,
센서의 크기를 가진

00:07:37.073 --> 00:07:43.177
카메라라면 사실
저희가 보는 모니터,

00:07:43.787 --> 00:07:47.224
모니터로 봤을 때
화질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.

00:07:47.778 --> 00:07:53.478
예를 들어서 이만한 사진이
1,000만 화소의 사진이라고 치면

00:07:53.478 --> 00:07:57.552
1 500만 화소는 한 이 정도의
크기가 된다고 치면

00:07:58.024 --> 00:08:00.747
이 정도 크기의 사진이나
이 정도 크기의 사진이나

00:08:00.865 --> 00:08:03.533
같은 크기로 봤을 때는,
눈으로 봤을 때,

00:08:03.816 --> 00:08:07.603
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.
그러니까 항상 카메라를

00:08:07.628 --> 00:08:12.511
고르실 때는 화질도 중요하지만
첫 번째로 이 카메라의

00:08:12.511 --> 00:08:16.337
센서 크기가 몇 인지
그걸 확인하시는 게

00:08:16.475 --> 00:08:18.580
한 가지 팁이라고
할 수 있을 것 같고요.

00:08:18.847 --> 00:08:23.876
그러면 이제 컴팩트 카메라,
컴팩트 카메라는 보시면

00:08:23.876 --> 00:08:27.770
스마트폰보다 더 작은

카메라도 많죠.

00:08:27.770 --> 00:08:33.084
그러니까 휴대하기 편하고
그리고 아무래도 스마트폰보다는

00:08:33.084 --> 00:08:35.848
센서의 크기가 크니까
화질이 좋고

00:08:36.255 --> 00:08:42.508
그리고 스마트폰은
렌즈가 거의 몰래카메라 수준으로

00:08:42.508 --> 00:08:44.428
굉장히 작은 렌즈가
들어가 있는 반면에

00:08:44.886 --> 00:08:48.454
컴팩트 카메라는 그래도
이 정도 크기의

00:08:48.454 --> 00:08:51.893
렌즈가 들어가니까
센서도 더 커지고

00:08:52.897 --> 00:08:56.093
빛을 모아주는
렌즈의 크기도 크니까

00:08:56.093 --> 00:08:58.984
당연히 화질도 좋겠죠.
렌즈의 크기가 커지면

00:08:59.016 --> 00:09:02.911
또 하나 장점이
아웃포커싱 효과를

00:09:03.176 --> 00:09:07.611
조금이라고 더 느끼실 수도가 있어요.
아웃포커싱이라는 단어는

00:09:07.611 --> 00:09:10.206
사실 올바른 단어는 아니고
정확한 단어는

00:09:10.231 --> 00:09:13.276
백그라운드 블러라고 하는데
내가 찍고 싶은 부분만

00:09:13.276 --> 00:09:16.134
선명하게 뒷부분이나
앞부분은 흐릿하게 나오는

00:09:16.134 --> 00:09:20.991
효과가 그렇게 극단적으로
큰 차이는 아니지만

00:09:20.991 --> 00:09:25.242
그래도 스마트폰보다는
어느 정도는 효과를

00:09:25.242 --> 00:09:27.570
보여줄 수 있는 게
컴팩트 카메라라고 할 수 있고요.

00:09:28.348 --> 00:09:31.437
컴팩트 카메라는 너무나

다양한 종류가 있지만

00:09:31.437 --> 00:09:38.415
어느 정도 레벨의 카메라라면
미러리스나 SLR이 가지고 있는

00:09:38.415 --> 00:09:41.430
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
가지고 있으면서

00:09:41.681 --> 00:09:45.523
렌즈도 커지고 스마트폰에 비해서
렌즈도 커지고

00:09:46.082 --> 00:09:49.282
자동모드, 수동모드
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

00:09:49.282 --> 00:09:52.787
셔터스피드 우선, 조리개 우선 같은
여러 가지 모드들을

00:09:52.787 --> 00:09:54.845
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
많이 담겨있으니까

00:09:54.976 --> 00:09:59.898
컴팩트 카메라도
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에서

00:10:00.652 --> 00:10:03.359
여러 가지 기능들을
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

00:10:03.548 --> 00:10:06.150
굉장히 좋은 장비라고
할 수 있고요.

00:10:08.599 --> 00:10:11.547
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
괜찮을 것 같다는

00:10:11.572 --> 00:10:14.257
생각이 드는데,
컴팩트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

00:10:15.047 --> 00:10:18.542
너무 고가의 컴팩트 카메라는
좀 피하시는 게

00:10:18.542 --> 00:10:21.741
좋을 것 같아요.
이런, 저런 기능을

00:10:21.741 --> 00:10:25.917
다 넣어서 적게는 50만 원,
크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

00:10:26.042 --> 00:10:31.841
컴팩트 카메라들도 있지만
컴팩트 카메라의 가장 큰 목적이

00:10:31.853 --> 00:10:36.494
휴대가 간편하고 쉽게, 쉽게
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걸

00:10:36.519 --> 00:10:39.047
꼭 기억하시고

너무 고가의 컴팩트 카메라는

00:10:39.072 --> 00:10:44.876
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
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러리스 카메라인데,

00:10:45.506 --> 00:10:50.375
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
이 강의를 촬영하면서

00:10:50.375 --> 00:10:52.625
미러리스 카메라 두 대를
사용하고 있거든요.

00:10:52.625 --> 00:10:56.791
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
미러리스 카메라의 보편적인 모습을

00:10:56.816 --> 00:11:00.282
보여드리도록 하고
기능적인 것은 제가 말로 다시

00:11:00.282 --> 00:11:03.107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미러리스 카메라는 뭐냐면

00:11:03.854 --> 00:11:09.723
그 이름부터 설명을 해 드리자면
미러리스, 미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.

00:11:09.750 --> 00:11:14.043
그러면 미러가 있는 카메라는 뭐냐,
미러가 있는 카메라가

00:11:14.587 --> 00:11:17.393
SLR 카메라라고 하는
가장 보편적인 카메라의

00:11:17.393 --> 00:11:21.893
형태고요.
먼저 SLR 카메라를

00:11:21.893 --> 00:11:27.592
보여드리면 이 윗부분을 보시면
윗부분, 이쪽 카메라가

00:11:27.592 --> 00:11:29.790
보일까요?
이 윗부분을 보시면

00:11:29.790 --> 00:11:34.436
보편적인 카메라는 항상
이 윗부분이 이렇게 뭔가

00:11:34.436 --> 00:11:37.492
볼록 튀어나와 있어요.
이게 이 부분에

00:11:37.492 --> 00:11:39.767
미러가 들어가서
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

00:11:39.792 --> 00:11:43.285
이렇게 되는건데
이 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

00:11:43.484 --> 00:11:48.743
이 부분을 없애니까,

카메라가 이 볼록한 부분이

00:11:48.743 --> 00:11:53.434
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
카메라가 컴팩트 해 질 수 있어요.

00:11:53.696 --> 00:11:59.113
그 부분을 없앰으로써
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

00:11:59.113 --> 00:12:02.958
이런 컴팩트 카메라보다는
조금 더 카메라가 크지만,

00:12:03.283 --> 00:12:06.721
컴팩트 카메라와 SLR의
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.

00:12:07.987 --> 00:12:10.637
이 미러를 없애서
조금 더 콤펙트 해지지만

00:12:10.738 --> 00:12:19.037
화질은 SLR 카메라하고 똑같이
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게

00:12:19.037 --> 00:12:23.475
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이고요,
어떻게 보면 미러리스 카메라는

00:12:23.475 --> 00:12:27.576
컴팩트 카메라와 SLR의
장점만 모아놓은

00:12:27.655 --> 00:12:31.357
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
미러리스 카메라에도

00:12:31.357 --> 00:12:35.301
아까 말씀드렸던 센서라는 게
굉장히 다양한 크기가 들어가요,

00:12:35.326 --> 00:12:38.918
제조사 별로 조금씩
다르기도 하고 아니면

00:12:41.124 --> 00:12:43.581
센서의 어느 정도의
규격이 있는데

00:12:43.581 --> 00:12:45.611
그 규격 중의 하나를
말씀드리자면

00:12:45.820 --> 00:12:48.932
풀프레임 센서는
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

00:12:48.932 --> 00:12:52.103
35㎜ 카메라에
들어가는 필름,

00:12:52.363 --> 00:12:56.410
그 필름하고 똑같은 크기의
센서가 들어간다 그러면

00:12:56.437 --> 00:12:59.049
그 카메라를

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고요.

00:12:59.654 --> 00:13:04.193
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
보편적인 미러리스 카메라에

00:13:04.193 --> 00:13:08.251
들어가는 크기는 그 센서보다
조금 작은 사이즈의 센서가

00:13:08.251 --> 00:13:11.750
들어가요.
보통 무슨 크랍바디,

00:13:11.750 --> 00:13:14.552
크랍바디 이런 말씀
들어 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,

00:13:14.552 --> 00:13:17.901
크랍된 센서가 들어간 바디를
크랍바디라고 하는 거죠.

00:13:17.953 --> 00:13:20.635
당연히 큰 센서가
들어간 것보다는

00:13:21.297 --> 00:13:25.198
조금이라도 작은 센서가
들어간 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

00:13:25.198 --> 00:13:29.823
그런데 요즘에는 하도
그 센서 기술이 발전해서

00:13:31.131 --> 00:13:34.026
크랍센서가 들어간
카메라라고 하더라도

00:13:34.257 --> 00:13:39.036
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
화질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.

00:13:39.421 --> 00:13:41.911
단점이 있는 부분이
있기는 하지만

00:13:42.206 --> 00:13:46.780
일단 화소라든지
화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

00:13:46.780 --> 00:13:50.193
절대 품프레임 바디에 비해서
떨어지는 부분이

00:13:50.411 --> 00:13:52.841
거의 없거든요.
이게 풀프레임 바디라고,

00:13:53.804 --> 00:13:58.749
풀프레임 바디고,
이게 미러리스 바디라고 치면

00:13:59.309 --> 00:14:03.297
크기는 훨씬 줄어들고
무게도 훨씬 가벼워지면서

00:14:03.568 --> 00:14:06.468
SLR 카메라의 화질이

그대로 들어가고

00:14:06.885 --> 00:14:13.548
또 미러리스가 없기 때문에
이제 미러리스가 어떻게 보면

00:14:15.778 --> 00:14:20.995
AF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품인데,
미러가 없더라도

00:14:22.217 --> 00:14:27.620
충분히 빠른 속도의 AF,
그러니까 초점을 잡는 과정이죠.

00:14:28.138 --> 00:14:33.105
과정이 빨라지고
정확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

00:14:33.105 --> 00:14:37.143
미러리스 카메라도 굉장히
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다면,

00:14:38.252 --> 00:14:41.725
수준이라고 하기 그렇고,
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셨다면

00:14:41.802 --> 00:14:45.958
미러리스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
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

00:14:45.958 --> 00:14:50.979
생각이 듭니다.
그러면 제가 많은 사진이

00:14:50.979 --> 00:14:53.268
아마 미러리스 카메라의
일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

00:14:53.268 --> 00:14:55.193
보셨을 거예요.
그러니까 디자인은 그걸

00:14:55.193 --> 00:15:01.556
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
다음은 마지막으로 DSLR 카메라죠.

00:15:01.933 --> 00:15:07.178
DSLR은 무슨 의미냐면
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

00:15:07.178 --> 00:15:11.206
이런 필름카메라가 보시면
크기는 다르지만

00:15:11.848 --> 00:15:15.178
디자인은 거의 동일해요.
크기만 다르고

00:15:15.332 --> 00:15:19.025
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죠.
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

00:15:19.695 --> 00:15:23.272
옛날의 필름 카메라들도
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

00:15:23.820 --> 00:15:27.224
이 부분에 미러가

들어가 있는 거예요.

00:15:27.224 --> 00:15:29.832
펜터프리즘이라고 하는데
그거를 통해서

00:15:29.832 --> 00:15:35.238
렌즈로 들어온 빛이,
보시면 렌즈는 여기에 있는데

00:15:35.238 --> 00:15:38.809
여기로 빛이 들어가겠죠.
여기로 빛이 들어가는데

00:15:39.049 --> 00:15:43.603
우리가 보는 뷰파인더는
좀 위에 있잖아요.

00:15:43.603 --> 00:15:48.245
그러니까, 구조적인 거를
잠깐 설명드리자면

00:15:48.421 --> 00:15:54.990
일반적인 카메라의 빛의 흐름이
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

00:15:56.983 --> 00:16:01.101
뷰파인더로 우리가
앵글을 확인할 때는

00:16:01.557 --> 00:16:06.162
이 뷰파인더로 확인하게 되겠죠.
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진을

00:16:06.162 --> 00:16:11.382
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
셔터를 누르면 이 안에,

00:16:13.058 --> 00:16:16.008
셔터스크린이라는 게
들어가는데 이게 열리면서

00:16:16.154 --> 00:16:19.111
그 빛이 그대로 필름으로
들어가게 되는 거죠.

00:16:19.681 --> 00:16:23.054
그러니까 여기에다가
뷰파인더를 넣으면 당연히

00:16:23.343 --> 00:16:25.152
빛이 들어오면서
바로 볼 수 있지만

00:16:25.233 --> 00:16:29.279
여기는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
그 빛을 위로 올려서

00:16:29.279 --> 00:16:32.636
이 뷰파인더를 통해서
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게

00:16:32.636 --> 00:16:37.692
만든 구조를 SLR카메라라고 하는데
그건 그럼 DSLR은 뭐냐,

00:16:38.483 --> 00:16:43.351
똑같아요.

앞의 D는 당연히

00:16:43.351 --> 00:16:48.271
여러분들이 추측하신 것처럼
디지털이고, 똑같이 들어온 빛이

00:16:49.047 --> 00:16:53.202
중앙부에 있는 센서로 가는데
그 중간에 셔터스크린으로

00:16:53.202 --> 00:16:58.732
막아놨다가 셔터를 누를 때마다
셔터스크린이 올라가면서

00:16:58.808 --> 00:17:01.773
그 빛이 그대로 센서로
가게 되는 거고

00:17:02.142 --> 00:17:04.369
이 셔터스크린이
내려와 있는 동안에는

00:17:04.369 --> 00:17:12.051
그 빛을 펜터프리즘 부분으로
꺾어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

00:17:12.586 --> 00:17:16.926
지금 어떤 풍경이 렌즈로
들어오는지 확인하게

00:17:17.277 --> 00:17:21.948
만들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.
좀 길게 말씀드렸지만

00:17:21.973 --> 00:17:25.152
굉장히 간단해요.
간단하고, 또 인터넷에

00:17:25.152 --> 00:17:29.407
찾아보시면 펜터프리즘에 관한
자료가 많이 있으니까

00:17:29.519 --> 00:17:32.032
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
한 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

00:17:32.057 --> 00:17:35.988
좋을 것 같고요,
이 DSLR 카메라의 장점은

00:17:38.454 --> 00:17:41.464
하나에요,
하나 화질이 좋다, 화질.

00:17:43.764 --> 00:17:48.546
풀프레임 바디의 경우에는,
DSLR 카메라도 물론 아까

00:17:48.546 --> 00:17:51.700
말씀드렸던 풀프레임 센서가
들어가는 DSLR 카메라도 있고

00:17:52.177 --> 00:17:56.291
약간 작은, 1.5크랍,
1.6크랍이라고 하는데,

00:17:56.583 --> 00:18:01.339
약간 작은 센서가 들어가는

DSLR 카메라도 있어요.

00:18:01.339 --> 00:18:05.453
물론 센서가 큰,
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는

00:18:05.453 --> 00:18:10.644
DSLR은 어느 정도
고가의 렌즈에 속해 있겠죠.

00:18:10.740 --> 00:18:14.050
그리고 좀 작은 센서가 들어가는
카메라는 그래도 좀

00:18:14.050 --> 00:18:19.840
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
저는 일 때문에 당연히

00:18:19.840 --> 00:18:22.029
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간
카메라를 쓰지만

00:18:24.596 --> 00:18:28.636
이게 화질은 그렇다 쳐도
최고의 단점이 있어요.

00:18:28.656 --> 00:18:33.026
너무 무거워요.
무겁고, 아니 간단하게

00:18:33.026 --> 00:18:35.313
한두 시간 정도
여자친구하고 카페에서

00:18:35.313 --> 00:18:38.609
커피를 한잔 마시러 나갔는데
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

00:18:38.609 --> 00:18:42.084
들고 나갈 수 있겠죠.
물론 이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는

00:18:42.109 --> 00:18:44.362
들고 나갈 수 있어요.
아무리 무거워도

00:18:45.104 --> 00:18:48.569
근데 한 번, 두 번 들고
나가다 보니까

00:18:48.569 --> 00:18:50.929
손목도 너무 아프고
찍을 때도 너무 힘들고

00:18:51.728 --> 00:18:55.183
가장, 제가 사진 생활에 있어서
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

00:18:55.208 --> 00:18:58.851
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
단점이 있어요.

00:19:00.102 --> 00:19:02.845
아무리 멋진 사진을
찍고 싶어도 카메라를 들고

00:19:02.845 --> 00:19:05.630
나가서 촬영을 해야

멋진 사진을 담는 거지.

00:19:05.767 --> 00:19:08.410
무거워서 이거 들고
나가기 힘들다는 생각이

00:19:08.410 --> 00:19:10.304
들기 시작하면
어떻게 될까요?

00:19:10.641 --> 00:19:12.559
당연히 사진의 수도
줄어들겠죠.

00:19:12.900 --> 00:19:19.527
그러니까 정말, 물론 좋아요
풀프레임의 DSLR 카메라가

00:19:19.527 --> 00:19:24.034
물론 좋은 거는 확실하지만
사진에 대한 접근성을

00:19:24.034 --> 00:19:26.168
향상시키기 위해서는
처음에 말씀드린

00:19:26.168 --> 00:19:30.750
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
미러리스 카메라, 컴팩트 카메라

00:19:30.750 --> 00:19:35.322
어떤 카메라든
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

00:19:35.322 --> 00:19:39.030
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
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

00:19:39.208 --> 00:19:42.618
아, 그리고 한 가지
빠뜨린 부분이 있는데

00:19:42.980 --> 00:19:46.367
SLR카메라, DSLR 카메라
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

00:19:48.105 --> 00:19:51.370
이거죠.
이 바디 카메라와

00:19:51.370 --> 00:19:56.521
렌즈가 분리된다는 것.
이 부분은 이제 방금 전에

00:19:56.521 --> 00:20:01.846
말씀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도
같은 내용으로 포함이 되겠지만

00:20:02.400 --> 00:20:04.808
그 상황에 맞춰서
풍경을 찍을 때나

00:20:04.808 --> 00:20:08.745
인물을 찍을 때 접사
곤충, 꽃 아니면

00:20:08.745 --> 00:20:11.470
사물을 찍을 때

제품을 찍었을 때에 맞춰서

00:20:11.470 --> 00:20:15.793
그 상황에 맞는
렌즈를 교환해서 씀으로써

00:20:16.140 --> 00:20:18.971
어떤 사진으로든
최적화된 이미지를

00:20:18.971 --> 00:20:22.791
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
이 DSLR 카메라의

00:20:22.791 --> 00:20:24.976
가장 큰 장점이라고
할 수 있는데

00:20:25.496 --> 00:20:29.844
그 렌즈 파트는 다음 차시에 또
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

00:20:29.889 --> 00:20:32.354
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
설명드리도록 하고요.

00:20:32.376 --> 00:20:36.020
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
간략하게 말씀드렸고

00:20:36.646 --> 00:20:40.965
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자면
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
00:20:40.965 --> 00:20:44.108
구슬이 서 말이라도
꿰어야 보배다.

00:20:44.729 --> 00:20:47.227
저도 지금 이런 카메라,
저런 카메라 많이

00:20:47.227 --> 00:20:50.434
가지고 있지만
정작 제가 가장 많이

00:20:50.434 --> 00:20:52.776
사용하는 카메라는
스마트폰 카메라에요.

00:20:52.956 --> 00:20:59.442
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,
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더라도

00:20:59.797 --> 00:21:03.851
사진을 많이 찍어야지
그 제품의 기능을 다 하는 거지

00:21:04.473 --> 00:21:07.396
아무리 비싼 1,000만 원,
2,000만 원 짜리 카메라를

00:21:07.947 --> 00:21:12.789
가지고 있는데 아, 이게 무겁고,
너무 고가여서 조심스럽고

00:21:13.905 --> 00:21:18.173
이렇게 제약이 생기면

어떻게 되겠어요.

00:21:18.416 --> 00:21:22.525
사진을 찍는 횟수가
줄어들고 사진을 찍는 횟수가

00:21:22.550 --> 00:21:25.793
줄어들면 아까 1차시에서
말씀드렸던 것처럼

00:21:26.132 --> 00:21:29.079
많이 찍어야지
사진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

00:21:29.705 --> 00:21:34.112
찍는 횟수가 줄어드니까
사진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

00:21:34.112 --> 00:21:37.880
굉장히 더뎌지겠죠.
그러니까 물론 팔심이

00:21:37.880 --> 00:21:40.716
좋으시거나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
무조건 매일 매일

00:21:40.716 --> 00:21:43.924
SLR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서
촬영하시면 좋겠지만

00:21:44.248 --> 00:21:49.059
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긴
힘드니까 항상

00:21:49.184 --> 00:21:52.552
자신의 상황에 맞게
환경에 맞는 카메라를

00:21:52.552 --> 00:21:56.048
선택해서 그 카메라로
아무리 저렴한, 10만 원 짜리,

00:21:56.073 --> 00:21:58.473
20만 원 짜리 카메라를
사용하시더라도

00:21:58.716 --> 00:22:02.131
그 카메라를 이용해서
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으시는 게

00:22:02.235 --> 00:22:06.623
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

00:22:06.623 --> 00:22:08.479
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
알아봤는데요.

00:22:09.532 --> 00:22:14.210
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
고가의 카메라를

00:22:14.210 --> 00:22:17.092
가지고 계시는 분들도
있으실 테고, 카메라가

00:22:17.092 --> 00:22:20.021
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.

근데 제가 확실하게

00:22:20.021 --> 00:22:24.104
말씀드릴 수 있는 건
사진의 퀄리티,

00:22:25.013 --> 00:22:28.388
화질의 퀄리티가 아니라
사진의 퀄리티는 절대

00:22:28.388 --> 00:22:31.186
그 장비의 가격하고
관계가 없습니다.

00:22:31.224 --> 00:22:37.268
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든
아니면 예전의 2G폰 카메라라든지

00:22:37.268 --> 00:22:44.251
뭐든지 간에 많이 촬영해 보시고
아니면 기회가 되신다면

00:22:44.251 --> 00:22:46.865
지인분들의 카메라를
많이 사용해 보시고

00:22:47.148 --> 00:22:51.102
자신에게 맞는 카메라가
뭔지 한 번 곰곰이

00:22:51.102 --> 00:22:53.947
생각해 보시는 시간을
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00:22:53.947 --> 00:22:58.194
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
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

00:22:58.194 --> 00:23:00.731
사진 이야기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